



에스페란토 현황 (2002년)

소수민족의 권리와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국제공통어 에스페란토가 국제기구로부터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 비정부기구 연대는 유엔과 유럽연맹이 국제적 언어문제를 총회 의제로 채택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1996년 7월, 체코의 프라하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의 언어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에는 국제기구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에스페란토의 현황을 검토하고 언어권과 언어정책 논의 과정에 에스페란토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에스페란토 운동의 기본목표를 천명한 [프라하 선언]은 언어적 민주주의와 언어적 다양성의 보존을 강조하고 있다. 에스페란티스토로서 최근에 각광을 받은 사람은 199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라인하르트 셀텐 박사, 1996년 세계 체스 선수권자 쓰사 폴가, 유명한 세계 증권계의 큰손 조지 소로스의 아버지 티바달 소로스 등이 있다. '원주민간의 대화' 프로그램은 식민지 내의 원주민들이 식민국어를 통하지 않고, 에스페란토를 통하여 직접 다른 원주민과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목적과 기원: 에스페란토는 자멘호프(Lazaro Ludoviko Zamenhof)박사가 1887년 폴란드에서 발표하였다. 모든 사람이 자기 민족어 이외에 공통된 제2언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계획적 국제공통어'에 관한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멘호프 박사는 이러한 공통어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과 조그마한 단어집만 발표하였다. 그런데 에스페란토는 오늘날 전 세계에 사용자가 있고 풍부한 문헌을 갖춘 성숙한 언어로 성장하였다.

특징: 에스페란토의 어근은 주로 유럽언어에서 따왔고, 문법 구성은 슬라브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발음은 규칙적이어서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고립어인 중국어와 비슷하고, 구조는 터키어, 스와힐리어, 한국어 등과 같이 첨가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발전: 처음에는 어근이 1,000개 정도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10,000개 정도의 단어를 만들 수 있었다. 오늘날 에스페란토 사전은 15,000-20,000개의 어근을 포함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십만 단어를 만들 수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에스페란토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때로는 문체가 되기도 하였다. 스탈린은 에스페란토는 '세계주의적 언어'라고 생각해

서, 히틀러는 에스페란토 창시자 자멘호프 박사가 유대인이었던 것을 이유로 에스페란토는 유대인의 언어라고 하여 그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사용자: 세계에스페란토협회 (Universala Esperanto - Asocio)는 62개국에 가맹국협회가 있고, 약 120개국에 개인회원이 있다. 판매되는 교과서와 각 지방 에스페란토회의 회원 수로 미루어 보아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사람은 수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중국, 일본, 브라질, 프랑스, 불가리아 등에 특히 에스페란토 사용자가 많다.

에스페란토 교육: 에스페란토는 쉽게 배울 수 있으므로 외국어 학습에 이상적이다. 수 주일 학습하면 에스페란토로 서신교환을 할 수 있고, 수 개월 공부하면 외국여행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에스페란토를 먼저 배우면 다른 외국어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는 학교도 많지만, 독학, 통신교육, 인터넷, 강습 등을 통하여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다. 100개 이상의 언어로 교과서나 안내서가 발행되었으며, 에스페란토 교사들을 위한 홈페이지 www.edukado.net는 최근의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식적 인정: 1954년 Unesco 총회는 에스페란토의 활동이 Unesco의 목적 및 이념과 일치한다고 인정하고, 세계에스페란토협회(UEA)와 자문관계를 수립하였다. 1977년에는 음보우 Unesco 사무총장이 아이슬란드에서 개최된 제6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에서 연설을 하였으며, 에스페란토 발표 100주년을 맞이하여 1985년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개최된 Unesco 총회는 회원국과 각 국제기구에게 에스페란토를 가르치고 활용하도록 요청하였다. UEA는 UN, UNICEF, 유럽 자문회의, 미주국가기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자문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회의와 여행: 매년 약 100회의 크고 작은 국제회의가 통역 없이 에스페란토로 개최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세계에스페란토대회인데 1994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2002년에는 브라질, 2003년에는 스웨덴, 2004년에는 중국, 2005년에는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다. 아랍 에스페란토 심포지엄이 2000년 요르단의 암만에서 개최되었고, 제5차 미주대회가 2001년 멕시코에서, 제3차 아시아대회가 2002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에스페란토 가정에 민박을 주선하는 Pasporta Servo 2002년 판에는 에스페란토 여행객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할 사람이 82개국에 1200여명이 기록되어 있다.

연구와 도서관: 언어학 교과에 에스페란토를 포함시킨 대학이 많고, 에스페란토를 독립과목으로 가르치는 대학도 많다. 헝가리의 에토바스로란드 대학에는 에스페란토 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폴란드의 포즈난 대학에는 언어학과에 에스페란토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산마리노 국제학술아카데미는 6개 학부의 전과목을 에스페란토로 강의를 하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미국 현대어 연감에는 매년 에스페란토 관련 출판물이 300개 이상 기록되고 있고, 영국에스페란토협회 도서관에는 약 2만 권의 책이 있다. 그 이외에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소속의 비엔나 에스페란토박물관, UEA본부에 있는 호들러 도서관, 독일 알렌의 알렌 문고가 유명한데 비엔나 박물관과 알렌 문고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전문분야: 에스페란토 사용자 중에는 의사, 작가, 철도 종업원, 과학자, 음악가 등 많은 직업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각기 전문서적을 발표하고, 전문인 단체를 만들어 모이기도 한다. 천문학, 컴퓨터, 식물학, 곤충학, 화학, 법학, 철학 등에 관한 에스페란토 원서도 많이 나와 있다. 전문단체로는 스카웃, 맹인단체, 바둑연맹, 고양이 애호가 협회 등 다양하고, 세계청년에스페란토기구(TEJO)는 매년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기관지도 발행하고 있다. 불교, 천주교, 케이커교, 개신교, 물문교, 오오모토, 바하이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는 에스페란토 조직을 가지고 있고, 여러 사회활동가들도 에스페란토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

번역: 근래에 발행된 번역물로는 노인과 바다(헤밍웨이), 반지의 제왕(톨킨), 백년간의 고독(갈시아말케즈), 동방 건문기(말코 폴로), 홍루몽(차오쉐칭), 한국 단편소설 선집(조성호, 김우선) 등이 있다. 어린이 책으로는 아스테릭스, 위니더푸, 툰틴 등이 나와 있고, 증권계의 큰 손 조지 소로스의 아버지 티바달 소로스가 쓴 에스페란토 원작 소설 '학살'은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터키어로 출판되었고, 한국의 시인 정사섭의 에스페란토 원작시집 'La Liberpoeto' (1938년)를 한국어로 번역한 시집 '날개없는 새'(김우선, 김여초 역)가 1999년에 출판되었다.

연극, 영화: 골도니, 섹스피어, 이오네스코 등의 연극이 에스페란토로 연출되었고, 2001년에는 섹스피어의 '리או 왕'이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에스페란토로 공연되었다. 채플린의 영화 '독재자'에서는 에스페란토 표시판이 쓰여졌고, 윌리엄 샤트너의 영화 '잉쿠부스'는 전체 대사가 에스페란토로 되어 있다.

음악: 에스페란토 음악장르에는 팝송, 포크송, 록, 카바레, 독창, 합창, 오페라 등 다양하다. 인기 있는 에스페란토 작곡가/연주자인 영국의 디비스 코스텔로, 미국의 마이클 잭슨은 에스페란토 음악을 녹음하고 작품을 썼다. 에스페란토로 된 워너 음악앨범 'Esperanto'는 1996년 11월 스페인에서 발매되자 히트곡 순위에 올랐다. 에스페란토 음악을 웹상에서 받아들 수 있다.

정기간행물: 월간 잡지 Monato, 격주간지 Heroldo, 격주간지 Eventoj, UEA 기관지 ESPERANTO 등 100종류 이상의 잡지와 신문이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의학, 종교, 청년, 교육자, 문학가 등의 기관지가 발행되고 있다.

라디오, TV: 오스트리아, 브라질, 중국, 쿠바,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태리, 폴란드, 바티칸에서는 정기적으로 에스페란토 방송을 하고 있으며, 라디오 폴란드, 오스트리아, 중국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방송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터넷 방송(www.esperanto-radio.net)이 되고 있다. 폴란드 TV에서는 에스페란토 강습교재 'Mazi en Gondolando'를 16회에 걸쳐 방영하였으며, 중국 상해에서도 TV를 통한 강좌를 하였다.

인터넷: 인터넷 사용은 에스페란티스토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각 분야에 관한 에스페란토 토론 그룹이 100개가 넘으며, ICQ, IRC, PalTalk 등 채팅에도 에스페란토가 활용되고 있다. 에스페란토 관련 웹페이지는 수백 개가 되는데 에스페란토 가상 공간 도서관(www.esperanto.net/veb/ 또는 아무 탐색 엔진에서 'Esperanto'라고 치고 찾으면 많은 정보가 나온다.

UEA의 서비스: 세계에스페란토협회(UEA)는 에스페란토 서적, 잡지 및 연감을 발행하고, 기타 서적, 카세트, 비디오 테이프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세한 정보는 www.uea.org/katalogo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UEA 서점에는 3500여 제목의 책이 있다. UEA의 영어 간행물 'Esperanto Documents' 시리즈에는 에스페란토 운동과 언어문제 등에 관한 영어 책들이 나와 있다.

문의 : 세계에스페란토협회 :

uea@inter.ne.net. www.uea.org.
전화 +31-10-436-1044. 팩스 +31-10-436-1751
한국에스페란토협회 :
keast@soback.kornet.net. www.esperanto.or.kr.
전화 02) 717- 6974 팩스 02) 717-6975